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전후 어머니의 양육불안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An Analysis of the Influential Factors on Mother's Child-rearing Anxiety Before and After Their Children's Entrance into Elementary School

신수희¹

Su-hui Shin¹

ABSTRACT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the tendencies and differences of mother's child-rearing anxiety before and after their children enter into elementary school, to analyze the factors influencing child-rearing anxiety at each time, and thereby to seek a support plan at the time of transition.

Method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181 mothers who participated in two surveys which were conducted before and after their child entered into elementary school.

Results: Firstly, mother's child-rearing anxiety before and after their children's entrance into elementary school was at a middle level, but increased significantly when they experienced their children's transition to elementary school. Secondly, mother's child-rearing anxiety, before their children's entrance into elementary school, was influenced by private education, the collection of educational information, cognitive ability, whether or not to develop a work status change plan, and birth order sequentially. Thirdly, child-rearing anxiety after their children's entrance into elementary school was significantly influenced by child-rearing anxiety before their children's entrance into elementary school and the mother's employment.

Conclusion/Implication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e point that it suggested the necessity for the cooperation between multiple systems, such as systematic and stepwise parenting education, the importance of offering information to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local governments, and for work-family support policy to prioritize children in order to support children's successful transition into elementary school.

* 본 논문은 2018년 인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임.

¹ 제1저자(교신저자)

인하대학교대학원 아동복지학 박사

(e-mail : ssh2311@hanmail.net)

key words entrance into elementary school, child care support environment, child belief, parent involvement, child-rearing anxiety

I. 서론

아동이 처음 경험하게 되는 의무교육 기관인 초등학교는 소규모 보육중심 육아지원기관과는

달리 학습에 초점을 맞춘 대규모 공교육 기관이다(지성애, 정대현, 2006). 유아기에서 초등학교로의 전이를 겪는 초등학교 1학년은 학령 초기로서, 아동이 학교 규칙 및 학습태도와 생활습관을 익히고 독립성을 키우며, 자기주도적인 행동 양식의 첫걸음을 딛게 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현재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교육기관 간 연계성이 낮아(송복순, 2014) 발달의 연속선상에 있는 아동이 초등학교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융합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한편,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함에 따라 부모 또한 새로운 역할 수행을 요구받게 되는데, 다수의 부모들이 정작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수행할 여건이 충족되지 않아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서 점차 체계화된 예비학부모 교육 자료를 제공하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육아정책연구소, 2017) 제대로 홍보·보급되지 않아 실제로 도움을 받기는 쉽지 않다. 게다가 초등학교로의 전이 경험이 있는 학부모와 예비학부모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개인의 경험에서 비롯된 편향적 정보를 공유함에 따라 기존의 신념이 흔들리거나 학교 준비에 대한 방향 설정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그러므로 필연적으로 다가올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에 대한 막연함이나 새로운 역할에 대한 혼란이 양육불안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양육자의 심리적 안녕은 양육행동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데 특히 양육불안이 높을 경우 자녀에 대해 비판적이고, 대처 능력을 의심하여 과도한 통제나 과보호로 자율성을 억압하거나 새롭고 어려운 과제에 도전할 기회를 제한하는 경향을 보인다(소언주, 도현심, 2001; 장유진, 2016; 천혜영, 2011; McLeod, Weisz & Wood, 2007). 하지만 이러한 형태의 양육행동은 학령 초기 아동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의 환경을 통제할 수 없다고 믿거나 자신의 능력에 대해 낮은 기대를 갖게 할 뿐 아니라(Rubin, Coplan, & Bowker, 2009), 불안·우울 및 문제행동을 초래하여(김우경, 2012),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다. 이처럼 양육불안이 아동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된 선행연구에 비추어 볼 때,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전과 입학 후에 부모가 갖는 불안 요소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 사료된다.

양육불안을 유발하는 원인은 매우 복잡적이고 다양하다. 그간 양육불안과 같은 맥락에서 연구되어 온 양육스트레스의 유발 원인을 Abidin(1990)는 개인과 개인이 처한 환경과의 관계에서 찾은 바 있다. 이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아동과 어머니의 인구통계학적 특성뿐 아니라 전이를 경험하는 아동이 처한 환경이 양육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즉, 물리적인 자녀 돌봄 지원 환경과 더불어 자녀 양육 및 교육에 대한 부모의 신념과 참여를 아동의 둘러싼 양육환경 요인으로 보고, 전이기에 어머니가 느끼는 양육불안의 궁극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전과 입학 후 어머니의 양육불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관련요인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들 수 있다. 아동의 성별에 따라 부모나 학교, 사회가 요구하는 역할과 기대가 다르기 때문에 양육불안이 다른 형태로 나타날 수 있고(박애경, 2015; 위지희, 2014) 자녀를 초등학교에 입학시킨 경험 여부, 즉 아동의 출생순위는 양육불안에 영향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박애경, 2015; 천혜영, 2011). 어머니의 연령과 학력은 자녀 발달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며, 다양한 문화적 경험이나 사교육에 대한 관심이 늘어남

에 따라 가구 월 소득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현실적인 지원을 위한 필요 요건으로 작용할 것으로 간주된다.

다음으로, 자녀 돌봄을 지원할 수 있는 환경, 즉 지지체계로서의 역할을 하는 어머니의 취업 여부, 근로 상태 변경 계획 및 실행, 양육보조자 유무가 양육불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오늘날 아동 돌봄은 가족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국가가 함께 수행해야 할 사회적 의무가 되었고, 돌봄에 대한 공동체적 대응이 꾸준히 요구되는 상황이다(조영희, 2014). 이에 정부는 2018년 4월,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계획을 밝혔는데 국고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초등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학교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빈틈없는 돌봄 체계를 구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18). 하지만 돌봄 공백 해소에 초점을 맞춘 정책은 최소한의 후속 조치로서, 설령 계획대로 잘 운영되어 맞벌이 부부의 돌봄 공백을 채워준다고 하더라도 부모의 역할을 대신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어머니의 취업 여부는 어머니가 직접적으로 자녀의 초등학교 전이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전제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어머니의 ‘취업’은 초등학교 입학 전후로 각종매체에서 관심사로 떠오른다. ‘초등 1학년 3월이 고비? 워킹맘에겐 골든타임’(조선닷컴, 2016.3.), ‘초등입학 의무휴직을 許하라 경력단절의 최대 난코스 돌파하려면’(한국일보, 2016.3.) 이라는 제목의 기사만 보더라도 취업모에게 있어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이 혼란과 불안을 야기하는 사건으로 인식됨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다. 결국 양육보조자가 없는 경우 자녀는 자기보호아동으로 지내거나 돌봄 공백을 채우기 위해 늦은 시간까지 공부방, 학원 등을 다녀야 하는 현실에 부딪히게 되고, 이로 인해 어머니의 죄책감과 불안은 상승할 수 있다. 설령 어머니가 전업모인 경우에도 방과 후에 적절한 활동을 찾아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학교적응을 돕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따라서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전과 입학 후 각각의 시기에 어머니의 취업 여부가 양육불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더불어 자녀의 입학을 계기로 취업모가 세운 근로 상태 변경 계획 및 입학 후에 변경된 근로 상태가 양육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세부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경력단절 여성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7년도에도 신학기를 전후한 2~3월에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직장건강보험 여성 가입자 1만 5841명이 퇴직한 것으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육아지원기관이 담당하던 돌봄 공백을 채우기 위한 취업모의 걱정과 고민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더불어 양육보조자 유무는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앞둔 근로 상태 변경을 결정짓는 전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변인으로 선정하였다. 취업모의 경우, 양육보조자는 돌봄의 공백을 채워주는 역할을 담당할 뿐 아니라 핵가족 형태 속에서 성장한 요즘 세대 부모에게 있어 지지체계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어머니 혼자서 자녀 양육을 담당하는 현상을 의미하는 ‘독박육아’, 이를 돕기 위해 조부모가 인근에 살거나 동거하면서 손자녀를 봐주는 현상을 일컫는 ‘황혼육아’등 신조어의 등장이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이처럼 자녀 돌봄 지원 환경이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전후 어머니의 양육불안을 완화·상승시키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지원 방법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앞둔 부모가 가지는 자녀 교육 및 양육에 대한 신념과 다양한 형태의 부모 참여 경향을 살펴보고, 자녀의 초등학교 전이를 경험하는 과정에서 어머니의 양육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한다. 양육 신념은 아동의 발달이나 양육에 대한

부모의 모든 사고로서(Miller, 1988), 다른 사람이나 사회로부터 일방적으로 가르침을 받거나 개인 내부의 정신적인 과정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모나 아이를 관찰하는 등의 일상생활의 다양한 경험에서 비롯된다(안지영, 2001). 따라서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이라는 같은 상황을 마주하게 되더라도 자녀 교육 및 양육에 대한 신념에 따라 심리적 상태는 각기 다른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송명숙, 2006). 이를테면 독립심을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머니는 아이가 혼자서 하는 행동이 서툴더라도 걱정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고 격려하는 반면(권주원, 2003), 초등학교로의 성공적인 전이를 위해서 기초학습 및 선행학습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경우 양육불안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한국교육개발원, 2015). 즉, 자녀 발달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토대로 확립된 신념은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순조로운 전이를 지원하는 자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자녀 교육에 대한 부모의 관심과 참여는 공교육이 시작되는 초등학교 전이기에 크게 증대된다(남혜련, 2000; 송명숙, 2006). 아동이 학교생활을 준비하는 시기의 부모의 교육적 활동 참여는 아동으로 하여금 새로운 환경에 진입할 때 지지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어 순조로운 적응을 도울 뿐 아니라 발달 및 학습성취도에 영향을 미침으로써(김민진, 2008; 편은숙, 2004; Fan & Chen, 2001) 아동의 초기 학교 적응의 중요한 예측변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이 시기에 부모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시간적, 금전적, 정서적 지원 등의 다양한 형태의 역할 수행은 일종의 입학 준비로서의 기능을 가짐과 동시에 부모역할을 충실히 행하고 있다는 효능감, 즉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는 행위로도 볼 수 있다. 따라서 부모의 참여행동은 그 영역과 정도에 따라 양육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종합하여, 관련 변인들이 초등학교 입학 전과 후 어머니의 양육불안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봄으로써 초등학교 전이를 경험하는 가족의 지원 시점과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이에, 기존의 초등학교 전이와 관련된 연구들의 한계를 보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첫째, 기존의 초등학교 전이 연구에서 연구대상자 선정에 한계점이 드러났다. 먼저 초등학교로의 전이경험이 모든 아동과 부모에게 불안과 혼란을 주는 적응과정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연구는 장애유아의 초등학교 입학유예와 통합의 어려움에 치중되어 있으며(김성순, 2006; 김해선, 2010), 초등학교 전이를 경험하는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미흡하다. 또한 초등학교 입학이 자녀 양육의 최대고비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선행연구가 전이를 직접 경험하는 아동의 심리 및 적응을 다루어왔다(김민진, 2008; 윤미란, 2012; 이윤미, 2007). 하지만 자녀의 순조로운 학교적응을 돕기 위해 양육 당사자인 어머니의 심리적 어려움을 연구하는 것은 매우 가치 있는 일로 사료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로의 전이를 겪는 어머니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둘째, 기존의 초등학교 전이관련 연구들은 대부분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는데(강경미, 2014; 김창복, 이신영, 2013; 윤미란, 2012), 초등학교 입학 전의 준비나 입학 후의 적응을 둘러싼 실태 및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을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소수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회적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초등학교로의 전이에 대한 어려움 및 불안을 드러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181명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양적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과 입학 후의 양육환경의 변화 및 양육불안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셋째, 전이연구는 전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시점에 집중해야 하고, 특히 연구대상자의 심리적 변화를 주제로 다룰 때에는 전이경험 전·후 시점의 심리상태를 조사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자료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는 전이 경험 전, 혹은 전이 경험 후의 한 시점에만 집중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며 종단연구의 경우에도 회고식 방법으로 이루어져 정확한 현상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있었다. 따라서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과 후를 일련의 연속적인 과정으로 보고 추적 연구를 진행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의 제한점을 보완하여 연구를 설계하였다.

본 연구는 초등학교로의 전이를 경험하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양육불안의 경향 및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전과 입학 후 두 차례에 걸쳐 조사를 진행하였다. 연구를 통해 실제로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전과 입학 후 어머니가 느끼는 양육불안을 측정함으로써 사회적 현상에 대한 객관적 지표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신학기가 되면 사회적 이슈가 되는 ‘초등학교 입학’과 관련하여 자녀 돌봄 지원 환경의 실태 및 자녀 교육 및 양육에 대한 부모의 신념과 참여 경향을 파악하고 이들 변인이 입학 전과 입학 후 각각의 시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노력은 초등학교로의 전이를 겪는 어머니의 양육불안을 줄이기 위한 개입과 지원방안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며 양육과정에서의 어려움에 대해 접근하는 방법을 모색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이다(Akazawa et al., 1999).

본 연구를 통해 아동과 부모의 원만한 초등학교 적응을 위해 유아기부터 단계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예비초등, 예비학부모 교육 자료 프로그램의 방향 및 대상과 여건에 맞는 지원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초등학교로의 전이를 겪는 어머니의 일시적인 양육불안 해소 뿐 아니라 자녀의 학교 적응을 돕고 가족의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이상과 같은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선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전후 어머니가 느끼는 양육불안의 경향은 어떠하며, 입학 전과 입학 후 어머니의 양육불안은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아동 및 어머니의 인구통계학적 변인, 자녀 돌봄 지원 환경, 자녀 신념, 부모 참여가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전 어머니의 양육불안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입학 전 양육불안, 아동 및 어머니의 인구통계학적 변인, 자녀 돌봄 지원 환경, 자녀 신념, 부모 참여가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후 어머니의 양육불안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자녀의 초등학교 전이를 경험하는 어머니이다. 지역적 안배를 고려하여 서울, 경기, 인천지역 육아지원기관 7개 기관(국공립 어린이집 2기관, 직장어린이집 2기관, 사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 3기관)을 유의 표집하였고, 만 5세반에 재원중인 유아의 어머니 292명을 대상

으로 입학 전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때, 입학 후에 진행될 조사에 대한 안내를 실시하고, 조사에 참여할 의향을 밝힌 어머니를 대상으로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 추적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 한 후 조사에 참여한 어머니는 181명으로, 표본 유지율은 62%이며, 입학 전과 입학 후 어머니의 양육불안을 비교하기 위해 두 차례의 설문에 모두 응답한 181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N = 181)

변 인		구 분	빈도(%)	
아 동				
성별	남		82(45.3)	
	여		99(54.7)	
출생순위	첫째(외동 포함)		108(59.7)	
	첫째 외		73(40.3)	
소 계			181(100)	
어머니				
연 령	35세 미만		15(8.3)	
	35세 이상 ~ 40세 미만		91(50.3)	
	40세 이상		67(37.0)	
	무응답		8(4.4)	
학 령	고등학교 졸업		35(19.3)	
	전문대학 졸업		48(26.5)	
	4년제 대학 졸업이상		92(50.8)	
	무응답		6(3.3)	
가구 월 소득 ¹⁾ (단위:만원)	300 미만		14(7.7)	
	300 이상 ~ 400 미만		37(20.4)	
	400 이상 ~ 500 미만		33(18.2)	
	500 이상 ~ 600 미만		43(23.8)	
	600 이상		45(24.9)	
	무응답		9(5.0)	
취업여부		입학 전	입학 후	
	취업	110(60.8)	87(48.1)	
	비취업	71(39.2)	94(51.9)	
소 계			181(100)	

주1. 가구 단위의 소득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2016)에 따르면 가구 월평균 소득이 439만 9천원 나타남.

2. 연구도구

1) 자녀 돌봄 지원 환경

자녀 돌봄 지원 환경은 초등학교에 입학한 자녀의 돌봄을 위한 지원체계 및 이로 인해 조성되는 환경을 말한다.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전과 입학 후 돌봄 지원 환경을 파악하기 위해 어머니

의 취업 여부, 근로상태 변경 계획(근로상태 유지 계획, 근로 스케줄 변경 계획, 휴직 및 퇴직 계획, 근로 상태 변경 계획 확정 여부) 및 실행 현황(근로 상태 유지, 근로스케줄 변경, 휴직 및 퇴직), 양육보조자 유무를 측정하였다.

2) 자녀 신념

자녀 신념은 부모가 자녀 교육 및 양육에 대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자녀 신념을 측정하기 위해 Okagaki와 Sternberg(1993)가 유치원과 초등학교 1, 2학년 자녀를 가진 부모를 대상으로 개발한 ‘Parental Belief Questionnaire(PBQ)를 권주원(2003)이 번안·수정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에게 적용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독립심 촉진 15문항(예: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하여 노력하도록 돕는 것), 사회적/행동적 교육 4문항(예: 친구를 사귀고 다른 사람과 지내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 인지적 능력 15문항(예: 복잡한 정보를 이해하는 것)의 3개 요인 34문항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녀 신념은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를 독립심이 발달하도록 지도하는 것, 유아교육에서 교사가 아동에게 사회적/행동적 교육을 하는 것, 학교에서의 학업성취 등 인지적 능력을 중요시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각 하위요인 별 신뢰도 계수는 .72~.90 범위에 포함되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이다.

3) 부모 참여

부모 참여는 부모가 자녀 교육 및 양육과정에서 자녀의 발달을 증진시키거나 강화하기 위해 참여하는 행동을 의미한다. 부모 참여를 측정하기 위해 송명숙(2006)은 유아기 자녀의 교육에 대한 부모의 참여 방식을 학교 참여, 가정 참여, 학교-가정 연계의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여 측정 한 Fantuzzo, Tighe 그리고 Childs(2000)의 가족참여 질문지(Family Involvement Questionnaire: FIQ)와 국내 연구 및 어머니와 교사의 면접을 통해 척도를 구성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송명숙(2006)의 척도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이를테면, 학교에서의 부모 참여인 기관과 연계, 행사참여는 문항 내용의 맥락이 비슷하여 두 변인을 합하여 ‘기관연계 및 행사참여’로 명명하였고 23번 문항(선생님께 작은 선물 등으로 성의를 표시한다)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 법)’에 의거하여 삭제하였다. 학교 외 교육을 통한 부모 참여는 이해를 돕기 위해 문항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사교육’으로 변인 명을 수정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부모참여 척도는 교육정보 수집 8문항(예: 자녀 교육에 관련된 TV프로그램 및 육아 서적을 본다), 가정 내 학습지도 4문항(예: 자녀와 읽기/쓰기에 관련된 활동을 하며 시간을 보낸다), 문화적 경험 제공 6문항(예: 자녀의 다양한 경험을 위해 박물관이나 동물원 등에 자녀를 데려간다), 기관연계 및 행사참여 7문항(예: 자녀의 학습이나 행동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교사와 면담한다), 사교육 4문항(예: 학원, 학습지, 과외 등 사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키는 편이다)의 6개 요인 29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부모 참여는 Likert 4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각 하위요인별 점수가 높을수록 각 영역에 해당하는 참여 활동을 많이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부모 참여 전체의 신뢰도 계수는 .88이며, 각 하위요인별 신뢰도 계수는 .69~.81 사이에 분포하고 있으므로 신뢰할 수 있는 척도로 판단된다.

4) 양육불안

양육불안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역할을 수행할 때 느끼는 걱정이나 불안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자녀의 초등학교로의 전이를 경험하는 어머니의 양육불안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나 부합하는 척도가 부재하여 한국의 사회·문화적 특징을 반영한 척도를 개발하여 사용하였다. 척도 개발을 위하여 기존에 우리나라에서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는 양육불안 측정도구와 선행연구 및 연구보고서 분석 내용을 토대로 기초 문항을 선정하고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34문항의 예비척도를 구성하였다. 수집된 문항은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연구자와 3인의 아동학 전문가가 내용타당도를 검증하여 3개의 영역으로 분류하였다. 양육불안 척도의 적합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집중타당도를 확보하였으며 내적일치도를 분석한 결과 양육불안 전체 척도의 Cronbach's α 값이 .93으로 높게 나타나 안정적인 도구임이 증명되었다. 최종적으로 양육불안 척도는 부모역할 불안 16문항(예: 나는 부모로써 아이에게 좋은 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할까봐 걱정된다), 교육지원 불안 14문항(예: 인지적 학습(한글, 수학, 영어 등)에 필요한 교과에 대한 선행학습을 해야 할 것 같다), 자녀발달 불안 4문항(예: 나는 아이가 남들만큼 잘하지 못하면 뒤떨어진 사람이 될 것 같다)의 3개 요인 3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Likert 5점 척도로 어머니가 보고하였으며 각 하위요인별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영역에 대해 양육불안을 많이 느끼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 어머니의 양육불안 전체의 신뢰도 계수는 .92로,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81~.86 사이에 분포하고 있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입학 후 어머니의 양육불안 전체의 신뢰도 계수는 .90이며,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77~.85 범위에 포함되므로 신뢰할 수 있는 척도로 판단된다.

3. 연구 절차

본 조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예비조사를 통해 잘못 응답할 가능성이 있거나 중복응답이 필요한 문항을 파악하고 이에 대해 보충 설명을 기재하는 등의 수정 절차를 거쳤다.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연구 참여에 동의한 육아지원기관에 재원중인 만 5세반 유아의 어머니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고,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과 입학 후 두 차례에 걸쳐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입학 전 본 조사는 12월 4주차에 진행하였다. 이 시기는 한 해가 마무리되는 시점일 뿐 아니라 초등학교 취학통지서가 나오고 육아지원기관 졸업을 앞둔 상태로, 자녀의 연령과 지위 변화를 실감할 수 있기 때문에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어머니의 심정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표집된 어린이집 및 유치원 만 5세반에 재원중인 유아를 통하여 어머니용 설문지를 배부하고 1주일 후에 회수하였다. 이어서 입학 후 본 조사는 3월 4주차에 진행하였는데, 이 시기는 새로운 선생님, 친구들과 사회적 관계를 재구성해 나가고, 변화된 물리적 환경 및 교육과정에 적응해 나갈 뿐 아니라 어머니회 임원선출, 학부모 총회 및 상담 등이 진행되어, 어머니의 심리 상태를 파악하는데 적절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입학 후 조사는 아동이 육아지원기관을 졸업한 상태이기 때문에 접근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휴대 폰으로 문자를 발송하면 접속하여 바로 응답할 수 있는 형식의 모바일 설문으로 진행하였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로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고, 측정도구의 내적합치도를 산출하였다. 연구문제에 따라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전과 입학 후 어머니의 양육불안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대응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또한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전·후 각각의 시기에 어머니의 양육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결과 및 해석

1.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전과 입학 후 어머니의 양육불안 경향 및 차이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전과 입학 후 어머니의 양육불안 경향 및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조사를 진행한 후 대응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표 2와 그림 1에 제시하였다.

표 2. 입학 전과 입학 후 어머니의 양육불안 차이 (N = 181)

	초등학교 입학 전		초등학교 입학 후		paired- <i>t</i>
	M(SD)	(MIN, MAX)	M(SD)	(MIN, MAX)	
양육불안 전체	2.50(.53)	(1.29, 3.86)	2.72(.45)	(1.62, 3.79)	-6.99***
부모역할 불안	2.60(.58)	(1.25, 4.31)	2.79(.51)	(1.50, 4.00)	-5.15***
교육지원 불안	2.58(.59)	(1.14, 4.07)	2.64(.49)	(1.29, 3.86)	-1.09
자녀발달 불안	2.33(.82)	(1.00, 4.75)	2.71(.75)	(1.00, 4.50)	-6.70***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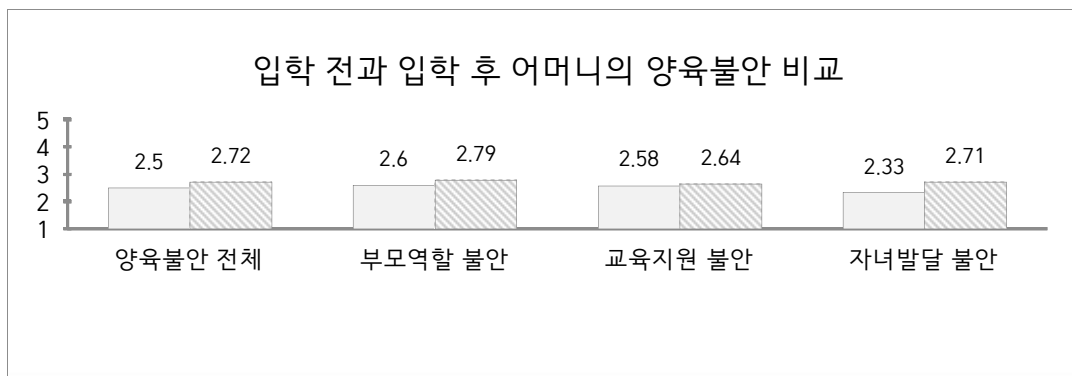


그림 1. 입학 전과 입학 후 어머니의 양육불안 비교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전과 입학 후 어머니의 양육불안 전체평균은 각각 2.50점($SD = .53$), 2.72점($SD = .45$)으로 3점(보통이다)을 밑도는 수준이지만, 초등학교로의 전이를 경험하면서 유의미한 수준으로 상승함을 알 수 있다($t = -6.99, p < .001$). 입학 전과 입학 후 양육불안의 차이를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부모역할 불안은 입학 전($M = 2.60, SD = .58$)보다 입학 후($M = 2.79, SD = .51$)에 유의미한 수준으로 상승하였고($t = -5.15, p < .001$), 교육지원 불안도 입학 전($M = 2.58, SD = .59$)보다 입학 후($M = 2.64, SD = .49$)에 소폭 상승하였으나 유의미한 수준의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자녀발달 불안은 입학 전($M = 2.33, SD = .82$)보다 입학 후($M = 2.71, SD = .75$)에 유의미한 수준으로 상승하였다($t = -6.70, p < .001$).

양육불안의 변화양상을 살펴보면 입학 전에 어머니가 느끼는 양육불안 정도는 부모역할 불안이 가장 높고 교육지원 불안, 자녀발달 불안 순으로 나타났으나, 입학 후에는 부모역할 불안, 자녀발달 불안, 교육지원 불안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기점으로 어머니의 양육불안이 전반적으로 상승할 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 특정 영역에 대한 불안이 상승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2.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전후 어머니의 양육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전후 어머니의 양육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에 앞서 각 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을 확인한 결과 공차 한계값은 .1이상, VIF값은 4이하, Durbin-Watson 검정통계량 값은 2에 근접하여 잔차항 간의 자상관이 없음이 확인되어 다중공선성의 위험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1)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전 어머니의 양육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아동 및 어머니의 인구통계학적 변인, 자녀 돌봄 지원 환경, 자녀 신념, 부모 참여가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전 어머니의 양육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 관련 변인이 입학 전 어머니의 양육불안에 미치는 영향 (N = 181)

구분	하위 변인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β	t	β	t	β	t	β	t
아동변인	상수		11.86***		11.26***		2.68**		2.96**
	성별 ¹⁾	.03	.43	.02	.22	.02	.22	.03	.44
	출생순위 ²⁾	.16	1.93	.13	1.59	.10	1.32	.14	2.01*
어머니변인	어머니 연령	-.06	-.76	-.06	-.78	-.07	-.89	-.04	-.50
자녀 돌봄 지원 환경	어머니 학력	.020	.23	.05	.66	.08	1.05	.02	.22
	가구 월 소득	.05	.59	.02	.29	.03	.33	.00	.02
	어머니 취업 여부 ³⁾			.14	1.47	.16	1.69	.13	1.57
	근로 스케줄 변경 계획 여부 ⁴⁾			.00	.01	-.02	-.20	-.02	-.21

표 3. 계속

구분	하위 변인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β	t	β	t	β	t	β	t
자녀 신념	휴직 및 퇴직 계획 여부 ⁵⁾			.05	.67	.04	.50	.05	.75
	근로상태 변경 계획 확정 여부 ⁶⁾			.18	2.39*	.17	2.19*	.14	2.08*
	양육보조자 유무 ⁷⁾			-.05	-.59	-.06	-.77	-.06	-.78
	독립심 촉진					-.00	-.01	-.08	-.86
	사회적/행동적 교육					-.06	-.65	-.01	-.16
부모 참여	인지적 능력					.29	2.96**	.22	2.48*
	교육정보 수집							.22	2.50*
	가정 내 학습지도							.02	.29
	문화적 경험 제공							-.16	-1.96
	기관연계 및 행사참여							-.14	-1.77
	사교육							.37	4.97***
R^2 ($adj R^2$)		.04(.01)		.01(.05)		.17(.10)		.40(.33)	
F		1.34		1.87		2.54**		5.92	
ΔR^2		.04		.06		.07		.23	
ΔF		1.34		2.34*		4.40**		12.47***	

* $p < .05$, ** $p < .01$, *** $p < .001$.

가변인화) ¹⁾1=남 ²⁾1=첫째 ³⁾1=취업 ⁴⁾1=근로 스케줄 변경 계획 있음
⁵⁾1= 휴직 및 퇴직 계획 있음 ⁶⁾1=근로상태 변경계획 미 확정 ⁷⁾1=유

최종 모형에 따르면 어머니의 양육불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사교육이었으며, 교육정보 수집, 인지적 능력, 근로 상태 변경 계획 결정 여부, 출생순위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아동과 어머니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투입한 모델 1에서는 종속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추가적으로 자녀 돌봄 지원 환경으로 설정된 어머니의 취업 여부, 근로 상태 변경 계획(근로 스케줄 변경 계획 여부, 휴직 및 퇴직 계획 여부, 근로 상태 변경 계획 확정 여부), 양육보조자 유무 변수를 투입한 모델 2에서는 근로 상태 변경 계획 확정 여부($\beta = .18, p < .05$)가 양육불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고, 설명력은 10%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자녀 신념의 하위변인인 독립심 촉진, 사회적/행동적 교육, 인지적 능력이 투입되었는데, 근로 상태 변경 계획 결정 여부($\beta = .17, p < .05$)와 더불어 인지적 능력($\beta = .29, p < .01$)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양육불안을 17% 설명하였다($F = 2.54, p < .01$). 마지막으로 부모 참여의 형태로서 교육정보 수집, 가정 내 학습지도, 문화적 경험 제공, 기관연계 및 행사참여, 사교육이 추가된 모델 4에서는 교육정보 수집, 사교육이 추가적으로 양육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고, 설명력은 23% 증가하였다. 최종적으로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전 어머니의 양육불안에는 사교육($\beta = .37, p < .001$)이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교육정보 수집($\beta = .22, p < .05$), 인지적 능력($\beta = .22, p < .05$) 근로상태 변경 계획 확정 여부($\beta = .14, p < .01$), 아동의 출생순위($\beta = .14, p < .05$)의 순서대로 영향을 미쳤으며

이들 변인의 총 설명력은 40%로 나타났다($F = 5.92, p < .01$). 즉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사교육을 많이 할수록, 교육정보 수집을 많이 할수록, 인지적 능력에 대한 기대가 높고 중요하다고 생각할수록 어머니가 양육불안을 더 많이 느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앞두고 근로상태 변경 계획을 결정하지 못했거나, 입학하는 아동이 첫째 자녀인 경우 어머니의 양육불안이 상승함을 의미한다.

2)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후 어머니의 양육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입학 전 양육불안, 아동 및 어머니의 인구통계학적 변인, 자녀 돌봄 지원 환경, 자녀 신념, 부모 참여가 입학 후 어머니의 양육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최종 모형에 따르면 어머니 양육불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입학 전 양육불안이며 어머니의 취업 여부도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1단계로 투입된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전 양육불안($\beta = .62, p < .001$)은 입학 후 어머니의 양육불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서 39%의 설명력을 가졌다($F = 113.71, p < .001$). 2단계에서 투입된 아동 및 어머니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3단계에서 자녀 돌봄 지원 환경으로 설정된 어머니의 취업 여부, 근로 상태 변경 실행(근로 스케줄 변경 여부, 휴직 및 퇴직 여부) 및 양육보조자 유무를 추가로 투입한 결과 입학 전 양육불안($\beta = .60, p < .001$)과 더불어 어머니의 취업 여부($\beta = .23, p < .01$)와 양육보조자 유무($\beta = -.15, p < .05$)가 입학 후 양육불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인은 입학 후 어머니의 양육불안을 45% 설명해 주었다($F = 13.62, p < .001$). 다음으로 자녀 신념과 부모 참여의 하위변인을 차례로 투입하였으나 최종적으로 모델 5에서 입학 전 양육불안($\beta = .56, p < .001$)과 어머니 취업 여부($\beta = .23, p < .01$)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고, 이들 변인의 총 설명력은 47%로 나타났다($F = 7.82, p < .001$). 즉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양육불안이 높았던 어머니일수록 입학 후 한 달가량 지난 시기에도 양육불안이 높게 지속되었고, 어머니가 취업상태인 경우에 양육불안이 상승함을 알 수 있다.

표 4. 관련 변인들이 입학 후 어머니의 양육불안에 미치는 영향 (N = 181)

구분	하위변인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Model 5	
		β	t	β	t	β	t	β	t	β	t
아동변인	상수		11.27***		6.26***		6.08***		2.91**		2.64**
	입학 전 양육불안	.62	10.66***	.62	10.60***	.60	10.09***	.61	9.86***	.56	7.75***
	성별 ¹⁾			.10	1.65	.10	1.69	.08	1.40	.08	1.32
	출생순위 ²⁾			-.02							
어머니변인	어머니 연령			.07	1.13	.10	1.55	.10	1.56	.11	1.63
	어머니 학력			.03	.46	.06	.86	.06	.92	.05	.74
	가구 월 소득			.09	1.50			.06	.89	.07	1.04
									.06	.84	

표 4. 계속

구분	하위변인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Model 5	
		β	<i>t</i>	β	<i>t</i>	β	<i>t</i>	β	<i>t</i>	β	<i>t</i>
자녀돌봄	어머니 취업 여부 ³⁾					.23	2.68**	.22	2.59*	.23	2.68**
지원환경	근로스케줄 변경 여부 ⁴⁾					-.06	-.97	-.06	-.87	-.06	-.86
	퇴직 및 휴직 여부 ⁵⁾					.08	1.21	.08	1.25	.09	1.33
	양육보조자 유무 ⁶⁾					-.15	-2.02*	-.15	-1.98	-.14	-1.90
자녀신념	독립심 촉진							.12	1.48	.10	1.21
	사회적/행동적 교육							.03	.34	.02	.24
	인지적 능력							-.12	-1.41	-.10	-1.18
부모참여	교육정보 수집									.05	.54
	가정 내 학습지도									.06	.82
	문화적 경험 제공									.00	.05
	기관연계 및 행사참여									-.06	-.83
	사교육									.031	.41
R^2 (<i>adj R^2</i>)		.39(.39)		.42(.40)		.45(.41)		.46(.41)		.47(.40)	
<i>F</i>		113.71***		20.93***		13.62***		10.73***		7.82***	
ΔR^2		.39		.03		.03		.01		.01	
ΔF		113.71		1.84		1.95		1.07		.59	

* $p < .05$, ** $p < .01$, *** $p < .001$.

가변인화) ¹⁾1=남 ²⁾1=첫째 ³⁾1=취업 ⁴⁾1=근로 스케줄 변경 ⁵⁾1= 휴직 및 퇴직 ⁶⁾1=유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자녀의 초등학교로의 전이를 경험하는 어머니의 입학 전과 입학 후 양육불안 차이를 살펴보고, 관련 변인들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전과 입학 후에 어머니가 느끼는 양육불안은 보통 수준임을 확인하였다. 매년 신학기가 되면 각종 매체에서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에 앞둔 부모의 걱정이나 불안, 혹은 입학 후에 겪는 어려움 및 부적응 사례들을 연달아 보도하며 과잉불안을 조장한다(MoneyS, 2018.3.; 베이비 뉴스, 2018.4.; 키즈맘, 2018.3.). 하지만 실제로 이 시기에 어머니가 느끼는 양육불안은 여키스-도슨의 법칙(Yerkes-Dodson Law)에 근거 할 때 학부모라는 새로운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최대의 효율을 가져올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해석할 수 있으므로 아동의 입학을 축하하고 지원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될 필요가 있다.

한편, 입학 전에 걱정 수준이었던 부모역할 불안, 자녀발달 불안, 양육불안 전체가 전이기를 거치면서 유의미한 수준으로 상승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한국의 부모는 자녀 교육을 위해 헌신하는 것을 부모의 당연한 도리로 여기고, 역할 수행에 책임과 부담을 느끼는 경향이 있다(김의

철, 박영신, 2008; 서주현, 김진경, 2012; 한지혜, 2004). 이러한 점에서 부모역할 불안의 상승은 초등학교로의 전이를 부모가 동행해야만 하는 힘든 여정으로 인식하거나(김창복, 이신영, 2013), 부모역할 수행이 자녀의 초등학교 적응 성공 및 실패를 좌우한다는 생각에서 비롯된다고 짐작된다. 하지만 부모역할에 대한 압박은 오히려 자녀를 과보호하거나 통제하는 수단으로 작용함으로써 자녀의 자기 효능감을 낮추게 되어 초등학교라는 새로운 환경에 스스로 적응해 나가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소언주, 도현심, 2001; 장유진, 2016; Weissman et al., 2004) 자녀의 발달 수준에 맞는 학부모 역할 지침 등을 마련하고 부모 교육을 확대함으로써 아동과 부모의 순조로운 초등학교 전이를 지원해야 할 것이다.

특히 자녀발달 불안은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의 기점으로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이는 초등학교 전이를 다룬 연구(강경미, 2014; 김창복, 이신영, 2013; 한국교육개발원, 2015)의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스스로 해내야 할 일들에 많아짐에 따라 자녀의 역할 수행 여부에 대한 걱정과 불안을 느끼게 되고, 특히 담임교사와의 상담이 진행되면서 자녀의 능력과 발달 수준 등에 대한 불안이 상승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같이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보다 입학 후에 양육불안이 상승하는 본 연구의 결과는 자녀가 육아지원기관에 다닐 때보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어머니의 자기효능감이 떨어지고, 양육스트레스가 증가하며 생활만족도가 낮아진다고 보고한 장우귀(2012)의 연구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가족생활주기상 자녀의 초등학교 전이기는 아동을 중심으로, 가족 구성원을 지원 범위에 포함해야 하는 시점임을 시사한다.

둘째,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전 어머니의 양육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사교육, 교육정보 수집, 인지적 능력, 근로상태 변경계획 확정 여부, 출생순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자녀에게 사교육 시키고 교육정보 수집을 하는 형태의 적극적인 참여가 양육불안을 상승시키는 결과는 그 원인이 초등학교 1학년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수준의 학업준비가 미흡이나 경제적 여건으로 인한 지원의 어려움 때문이 아니라 자녀에 대한 지나친 기대와 과도한 교육열에 있음을 반증한다. 이에 더하여 만 5세 아동의 지능의 개념에 대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를 파악한 인지적 능력에 대한 신념이 양육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가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을 무분별한 정보를 제공하는 SNS(Social Network Service)나 ‘불안 마케팅’으로 선행학습을 부추기는 사교육업계가 정보의 원천으로 자리잡고 있는 현실에서 찾아볼 수 있겠다.

취학 전에 이루어지는 사교육 경험은 학교생활 적응에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권혜진, 정혜옥, 2015) 적성이나 의견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고 학습동기를 낮추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김민진, 2008; 안미란, 2009; 어성식, 2013)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유아들이 의례적으로 다양한 사교육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강경미, 2014; 김창복, 김신영, 2013). 더욱이 학령초기에는 학업 능력을 강조하기 보다는 가정 및 학교생활에 대한 훈육을 적절히 함으로써 전반적인 학교 적응을 높이는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김수정, 광금주, 2010), 자녀의 인지적 발달을 돕는 것이 초등학교 입학의 준비하는 부모의 역할이라는 인식이 만연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자녀에게 사교육을 행함에 있어서 연령이나 발달수준에 맞는 목표와 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부모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다시 말해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전 양육불안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녀의 발달 수준 및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평소 자녀 교육에 대한 올바른 기준과 방향성 및 가치관을 확립하는 등 입학 준비와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로써 무분별한 교육정보 수집으로 인해 발달수준에 맞지 않는 인지적 능력을 기대하며, 사교육에 시간적, 경제적인 투자를 하면서도 불안을 느끼는 악순환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취업모가 근로 상태 변경 계획을 확정하지 못한 경우 양육불안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은 취업모가 자녀의 초등학교 생활 적응, 학습 지원 및 돌봄을 위해 경제활동 중단을 고려하는 결정적인 시기로 인식될 만큼 중요한 전이 사건이다(손서희, 이재림, 2014). 취업모는 자녀의 초등학교 적응 지원 및 행사 참여, 돌봄 공백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를 마주하게 되면서 근로 상태 변경에 대해 고민하게 되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검토하지만 명확한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해서 계획을 확정하지 못한 경우 불안이 상승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동이 첫째 자녀인 경우 양육불안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선행 연구의 결과를 지지한다(박애경, 2015; 천혜영, 2011). 이는 초등학교 입학이 아동 뿐 아니라 부모도 처음 겪는 전이경험이기 때문에 느끼는 불안감으로, 자녀의 발달 수준을 잘 모르거나 진학할 초등학교에서 취학준비에 대한 안내가 부족하고 취학에 대한 믿을 만한 정보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한국교육개발원, 2015).

셋째,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후 어머니의 양육불안에는 입학 전 양육불안과 어머니의 취업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즉,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 어머니가 느끼는 양육불안은 개인의 특성 때문에 갑자기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입학 전부터 불안이 높았던 어머니들의 불안이 유지·상승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로의 전이를 경험하는 어머니의 심리적 안정을 지원하고 자녀의 성공적인 초등학교 생활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전 양육불안이 높은 어머니를 위한 지원방안과 더불어 초등학교 입학 후 양육불안 상승현상에 대한 개입 방안으로 구분하여 제시할 할 필요가 있다.

먼저, 입학 후 양육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입학 전 양육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해 보면 사교육, 교육정보 수집, 인지적 능력, 출생순위가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전 어머니의 양육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예비학부모 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부모들의 접근이 용이한 육아지원기관이 주체가 되어 실용적인 예비학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함과 동시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학부모 지원센터 등에서 지원하고 있는 예비학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홍보·보급함으로써 초등학교 입학에 필요한 객관적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지역과 연계하여 취학통지서 발송 시에 해당 교육청관련 안내서를 제공하거나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의 형식을 교육과정 및 학사 일정 소개에 그치지 않고 아동이 부모와 함께 학교를 둘러보면서 물리적 환경을 익히는 형식으로 변경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러한 활동은 초등학교 입학 전, 막연함에서 오는 불안을 해소시켜 주고 긍정적인 전이경험을 안겨 줄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취업은 입학 후 어머니의 양육불안을 상승시키는 유의미한 요인으로 나타났다는데 이는 취업모가 자녀 교육에 관한 정보와 시간부족으로 불안감을 느낀다는 선행연구(김나현, 이은주, 곽수영, 박미라, 2013)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초등학교로의 전이 시에 부모가 관여를 많이 하고 부모와 교사가 아동관련 정보를 공유하면 아동의 전이가 더 잘 이루어지는 경향을 보이는데(OECD, 2017), 취업모는 학교와의 협력에 있어서 여건상 제한이 따르면서 불안을 느끼게 된다(김창복, 김신영, 2013). 또한 하교 시간이 오후 1시로 앞당겨짐에 따라 양육보조자를 구하거나, 학원 등록으로 돌봄 공백을 채우게 되면서 걱정과 죄책감에 양육불안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본 연구에 참여한 취업모의 61%만이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후에도 근로 상태를 유지하였고, 18%가 근로 스케줄을 변경, 21%가 휴직 및 퇴직을 감행하였다. 이는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후 취업모가 처하게 되는 상황을 예측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으며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시기에 어머니가 맞벌이를 그만두는 비율이 가장 높다고 보고한 <자녀 연령별 취업모 통계>의 결과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통계청, 2015). 이처럼 어머니의 취업 여부는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에도 어려움을 초래하기 때문에(육아정책연구소, 2017) 초등학교로의 전이를 겪는 취업모 지원 방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궁극적인 목표가 여성 고용 창출이나 경력 단절의 최소화가 아니라 아동의 순조로운 초등학교 전이를 지원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의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부모가 자녀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초등학교에 순조롭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중요하므로(Lillejord, S., Borte, K., Halvorsrud, K., Ruud, E., & Freyr, T., 2015), 취업모의 역할을 대신할 돌봄 공백을 채워줄 방안을 마련하기에 앞서 어머니가 취업상태에서도 효율적으로 자녀를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유연근무제, 시차 출퇴근제, 단축근무제, 자녀 돌봄 휴가제 등이 기업 내 문화로 하루 속히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의 연구를 토대로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본 연구는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어머니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자녀 양육을 공동으로 담당하고 있는 아버지를 연구대상에 포함하지 못하여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사회문화적 상황이 상이한 타 지역 어머니 및 아버지를 연구대상에 포함하여 초등학교로의 전이를 겪는 가족 내의 변화를 세밀하게 분석하기를 제안한다.

둘째, 연구는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전과 후에 동일 인물을 대상으로 추적 조사를 진행하였는데 두 번째 조사 시, 육아지원기관 졸업 후 각기 다른 초등학교로 입학한 아동의 어머니가 연구대상이 되면서 모바일 설문 등의 방안을 마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표본 유지율이 저조하였다. 이는 연구 대상자와의 접근성에서 오는 어려움 때문에 학령 초기 아동 연구가 그 중요성에 비해 선행연구가 미비한 현실을 드러내주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패널데이터를 활용하는 등의 다양한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학령초기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될 필요가 있겠다.

셋째, 결과를 도출하고 해석함에 있어서 부모 참여와 양육불안 간 인관관계의 방향성을 명확히 밝히지 못했고, 취업모가 근로상태를 변경한 이유, 추후 자녀의 학교 적응상태에 대해 파악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제한점을 극복하기 위해 심층면접을 병행한다면 초등학교로의 전이를 지원하는데 있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넷째, 초등학교로의 전이를 경험하는 어머니의 양육불안을 잘 드러내기 위해 육아지원기관의 졸업을 앞두고 취학통지서를 받은 시점과 초등학교 입학 후 총회, 상담 등의 학교 행사가 이루어진 3월 말을 조사시기로 정하여 진행하였다. 두 번의 조사결과 양육불안이 입학 전보다 입학 후에 상승하는 결과가 도출되었으나 추후에 2~3개월의 간격을 두어 어머니의 양육불안이 안정적으로 변화하는지 살펴보고 아동의 학교적응과 관련지어 분석하는 것도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진다. 본 연구는 매년 신학기에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는 초등학교 전이에 대해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준비 및 적응을 지원하는 당사자인 어머니의 심리적 어려움과 원인을 파악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접근하였다.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가정의 자녀 돌봄 지원 환경, 자녀 신념, 부모 참여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고 전이기의 어머니의 양육불안을 입학 전과 입학 후로 나누어 살펴봄으로써 각 시기별로 적절한 지원 및 개입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통해 자녀의 성공적인 초등학교로의 전이를 돕기 위해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부모교육을 비롯하여 교육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보제공, 아동을 우선으로 하는 일-가정 양립지원 정책 등 여러 체계의 협력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이러한 노력은 초등학교 전이를 경험하는 아동 및 가족구성원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자녀의 학교 적응을 도움으로써 궁극적으로 가족의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경미 (2014). 놀이 중심 유치원에 다니는 취학 전 만 5세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학교준비도에 대한 이해와 고민 및 요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강인귀 (2018.3). 초등학교 입학, 친구·선생님과의 관계가 가장 걱정돼. MoneyS <http://moneys.mt.co.kr/news/mwView.php?type=1&no=2018030807598080136&outlink=1>에서 2018년 3월 15일 인출
- 권주원 (2003).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신념과 아동의 창의성.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현경 (2018.4). 초등 1학년 둔 워킹맘 “학원으로 뽕뽕이 돌리는 게 맘 아파요”. 베이비 뉴스.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4270> 에서 2018년 4월 21일 인출
- 권혜진, 정혜옥 (2015).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육아지원연구*, **10**(4), 79-96. doi:10.16978/ecec.2015.10.4.004
- 김경림 (2018.3). 3월 개학 시준 어린이 교통사고 급증. 키즈맘. <https://kizmom.hankyung.com/news/view.html?aid=2018030703690> 에서 2018년 3월 15일 인출
- 김나현, 이은주, 박수영, 박미라 (2013). 어린 아동을 둔 취업모의 양육부담감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여성건강간호학회지*, **19**(3), 188-200. doi:10.4069/kjwhn.2013.19.3.188
- 김민진 (2008).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입학 초기 학교생활 적응에 대한 연구. *교육과학연구*, **39**(1), 181-210.
- 김성순 (2006). 유치원에서 초등학교로의 전이과정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석

사학위논문.

- 김수정, 광금주 (2010). 초등일학년 학교적응의 예언 변인들 간 관련성 탐색 I. **인간발달연구**, **17**(4), 89-109.
- 김우경 (2012). 어머니 불안과 학령 전 아동의 불안/우울 및 외현화 문제행동간의 관계- 아동 애착 안정성의 조절효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의철, 박영신 (2008). 한국사회와 교육적 성취: 한국 청소년의 학업성취에 대한 심리적 토대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4**, 63-109.
- 김창복, 이신영 (2013). 자녀의 초등학교 전이 및 적응에 대한 어머니들의 이야기. **어린이미디어 연구**, **12**(3), 319-350.
- 김해선 (2010). 장애유아의 초등학교 전이과정에 대한 부모 인식 조사. 강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남혜련 (2000).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학부모 역할에 관한 연구. 순천향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선영 (2016. 3). **초등입학 의무휴직을 許하라. 경력단절의 최대 난코스 돌파하려면**.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603020458175264>에서 2018년 3월 14일 인출
- 박애경 (2015). 어머니의 양육불안과 유아의 우울간의 상관연구. **유아교육학논집**, **19**(5), 375-392.
- 서주현, 김진경 (2012).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영 유아보육학**, **73**, 101-121.
- 소언주, 도현심 (2001). 어머니의 분리불안: 어머니의 특성, 아동의 초기 기질 및 과보호적 양육 행동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9**(11), 209-222.
- 손서희, 이재림 (2014). 미취학 자녀를 둔 취업모의 경제활동 중단 의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2**(3), 157-177. doi:10.7466/JKHMA.2014.32.3.157
- 송명숙 (2006). 취학직전 유아기 자녀 교육에 대한 부모의 신념과 참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송복순 (2014).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의 전환교육에 대한 이해. **초등교육학연구**, **21**(2), 39-55.
- 안미란 (2009). 서울 사교육 과열지역 초등학생의 학습동기 유발과 스트레스 비교.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지영 (2001). 2-3세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신념, 효능감 및 스트레스가 양육 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어성식 (2013). 사교육 학습이 수업 집중도와 성적 향상 지각에 대한 영향.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위지희 (2014). 양육불안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육아정책연구소 (2017). **초등자녀 양육지원 방안**(연구보고 2017-13).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http://www.kicce.re.kr>에서 2018년 3월 14일 인출
- 윤미란 (2012). 초등학교 1학년 아동과 학부모의 경험에 대한 이해. 배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윤미 (2007).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1학년으로의 전이경험(transition experience) 연구에 대한 이론적 배경 고찰. **초등교육학연구**, **14**(1), 117-134.

- 장우귀 (2012). 초등학교 입학 전후 아동과 어머니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영향과 변화: 종단분석. 인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장유진 (2016). 어머니의 불안, 심리적 통제 양육과 성취관심이 유아의 과제 재도전 반응에 미치는 영향: 과제수행 효능감의 매개효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18. 4). [정책 참고자료]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운영계획**. <https://www.betterfuture.go.kr/cop/bbs/anonymous/selectBoardList.do>에서 2018년 4월 5일 인출
- 조영희 (2014).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 서비스 분석과 개선방안.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8**(1), 141-162.
- 지성애, 정대현 (2006). 유아의 초등학교 적응 과정에 대한 사례 연구. **유아교육학논집**, **10**(1), 207-227.
- 천혜영 (2011). 어머니의 불안과 우울 및 양육스트레스가 어머니와 영유아간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수현 (2016. 3). **초등 1학년 3월이 고비? 워킹맘에겐 골든타임**. 조선닷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3/16/2016031600022.html에서 2018년 3월 15일 인출
- 통계청 (2015). **2015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부가항목 조사결과(맞벌이가구 및 1인 가구 고용현황)**. 대전: 공공누리.
- 통계청 (2016). **2016년 4/4분기 및 연간 가계동향**. 대전: 공공누리.
- 편은숙 (2004). 영유아기 자녀를 둔 취업모의 어머니 역할 인식과 자녀 양육스트레스.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국교육개발원 (2015). **초등학교 취학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과 지원 방안**(연구보고 RR 2015-06). 충북: 한국교육개발원.
- 한지혜 (2004). 취학 전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조기교육열. **열린유아교육연구**, **9**(1), 219-251.
- Abidin, R. R. (1990). Introduction to the special issue: The stress of parenting.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9*(4), 298-301. doi: 10.1207/s15374424jccp1904_1
- Akazawa, K., Kinukawa, N., Shippey, F., Gondo, K., Hara, T., & Nose, Y. (1999). Factors affecting maternal anxiety about child rearing in Japanese mothers. *Acta Paediatrica*, *88*(4), 428-430. doi: 10.1111/j.1651-2227.1999.tb01135.x
- Fan, X., & Chen, M. (2001). Parental involvement and students' academic achievement: A meta-analysis. *Educational Psychology Review*, *13*(1), 1-22. doi:10.1023/A:1009048817385
- Fantuzzo, J., Tighe, E., & Childs, S. (2000). Family involvement questionnaire: a multivariate assessment of family participation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2*(2), 367-376. doi:10.1037/0022-0663.92.2.367
- Lillejord, S., Borte, K., Halvorsrud, K., Ruud, E., & Freyr, T. (2015, Dec). *Transition from kindergarten to school: A systematic review*. Retrived March 13, 2018 from <http://www.eippe.eu/cms/Portals/41/Cache/PDFs/EIPPEE%202015%20Presentation%20RCN.pdf?ver=2016-04-23-122500-213>
- McLeod, B. D., Weisz, J. R., & Wood, J. J. (2007). Examining the association between parenting and

- childhood depression: A meta-analysis. *Clinical Psychology Review*, 27(8), 986-1003. doi:10.1016/j.cpr.2007.03.001
- Miller, S. A. (1988). Parents' beliefs about children's cognitive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59(2), 259-285. doi:10.2307/1130311
- OECD (2017). *Starting Strong V: Transitions from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to Primary Education*. Paris: OECD Publishing. doi:10.1787/9789264276253-en
- Okagaki, L., & Sternberg, R. J. (1993). Parental beliefs and children's school performance. *Child Development*, 64(1), 36-56. doi:10.1111/j.1467-8624.1993.tb02894.x
- Rubin, K. H., Coplan, R. J., & Bowker, J. C. (2009). Social withdrawal in childhood. *Annual Review of Psychology*, 60, 141-171. doi:10.1146/annur ev.psych.60.110707.163642
- Weissman, M. M., Feder, A., Pilowsky, D. J., Olfson, M., Fuentes, M., Blanco, C., et al. (2004). Depressed mothers coming to primary care: Maternal reports of problems with their children.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78(2), 93-100. doi:10.1016/S0165-0327(02)00301-4

논문투고: 19.08.15
수정원고접수: 19.10.31
최종게재결정: 19.11.23